



우리 영국인을 보여 드릴게요

사이먼 로버츠 *We English*

영국 셰필드에서 인문 지리학(Human Geography)을 전공한 사이먼 로버츠는 지리적 장소와 인간 활동이 어떤 상호 관계를 맺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지리적 위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그는 <We English> 시리즈를 통해 영국인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 글 박미성 영국통신원



사이먼 로버츠 Simon Roberts

1974년 영국 런던 사우스 크로이던(South Croydon, London)에서 태어난 사이먼 로버츠는 최근 영국 National Media Museum, 이탈리아 EX3 Centro per l'Arte Contemporanea, 중국 상하이 Museum of Contemporary Art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지난 2007년 Royal Photographic Society로부터 Vic Odden Award를 받았고, 2010년 House of Commons Works of Art Committee로부터 공식 선거 사진작가로 임명받아 영국 보통선거(General Election)를 기록하는 작업을 위탁 받았다. <Motherland>와 <We English> 등 두 권의 책을 출간했다.

www.chapter9photography.com

<We English>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지난 2005년 1년 동안 <Motherland> 프로젝트를 위해 러시아를 여행했다. <Motherland>는 러시아 국민들이 국가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연구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다. 러시아의 국민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들이 사모해 마지않는 장소들을 사진으로 담으면서 평범해 보이면서도 의미심장하고 또한 신비롭게까지 보이기 시작한 러시아의 국민성에 대해 알게 됐다. 이를 알면 알수록 모국 영국과 영국인의 국민성을 드러낼 만한 장소들이 머릿속에 오버랩됐고 내 가슴은 한없이 두근거렸다. 따라서 <We English>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작업한 <Motherland> 프로젝트의 또 다른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인의 기억과 정체성, 소속감을 발산하는 영국적인 장소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영국 국민으로서 느껴온 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버전인 것이다.

프로젝트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었나. 영국의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다양한 각도에서 영국(England) 본국과 대영제국(Great Britain)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형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들 중 가장 두드러진 업적을 이룬 다큐멘터리 작가들로는 벤자민 스톤(Benjamin Stone), 빌 브란트(Bill Brandt), 토니 레이 존스(Tony Ray Jones), 마틴 파(Martin Parr), 존 데이비스(John Davies)가 있다. 이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 2007년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에서 <How We Are: Photographing Britain>이라는 전시가 열렸다. 이 작품전이 <We English> 프로젝트에 강한 영향과 영감을 줬다.

작품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We English>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켰던 기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다. 지리학적 영역이 대영제국(Great Britain, England, Wales, Northern Ireland, Scotland)이 아닌 영국(England) 본국만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사진적 구성은 인물초상사진이 아닌 풍경사진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엔 영국인들의 레저생활에 포커스를 맞췄다. 영국인들의 레저 활동을 살펴보면 영국인들의 문화와 국민성도 바뀌어가고 있음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진 속 영국인들은 그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가활동은 즉,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봐줄지 열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드러내 주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소유할 수는 없어도 소비하고 활용하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행위가 바로 여가 생활인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 영국인들의 현주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We English> 프로젝트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길 바라나. 사진작가가 되기 전 나는 문화 지리학자로 일했다. 이로 인해 나는 <Motherland> 프로젝트와 <We English>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동안 지리학적 장소에서 얻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수십번씩 되새겨보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지리적 위치에 함축돼 있는 암호 같은 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면 작업은 어느새 인류학과도 근접해지고 사회 다큐멘터리 쪽으로도 근접해 가는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시간이 바뀌면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졌고, 지리적 위치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 되어졌는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줘 사회 활동과 역사적 영역에서 우리 영국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진부한 풍경 속이지만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전달되길 바란다.

<We English>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광활하게 넓은 모국을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기회, 그 자체만으로도 흥분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행길은 순례길이 돼버렸다. 하하.

새로운 작업도 진행중이라고 들었다. <We English>와 <The Election>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은 지금,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영국, 웨일즈,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돌아다니며 촬영한 사진들 중 정치·경제적으로 대영제국에 미친 영향들과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증거들을 추려내는 일을 하고 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영국 시민들의 반응과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한 그들의 노여움을 사진으로 담아 경고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를 나는 <Landscapes of Innocence and Experience>라 이름 붙였다.

사진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틈만 나면 나와 동생을 사진에 담았다. 일요일 오후에는 어두컴컴한 방에 둘러 앉아 아버지의 지시대로 돌아가는 프로젝터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이 아련한 추억을 통해 사진이라는 도구는 감정 표현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이런 가운데 사진이 보여준 놀라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었다. 14세가 되던 해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방학을 즐기던 때였다. 안셀 애덤스 최고의 작품들로 곱히는 요세미티에 대한 작품전을 다녀온 이후 감수성 예민했던 나는 안셀 애덤스의 작품들이 보여준 영묘함과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의 작품들은 그동안 등한시했던 요세미티의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새삼스럽게 다시 눈여겨 보게 만들었고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버지의 캐논 AE1 카메라를 빌린 나는 남은 방학을 카메라에 요세미티를 담으며 보냈다. 몇 년 뒤 스테판 쇼어(Stephen Shore)의 <Uncommon Place>를 들춰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눈이 머문 곳은 작가가 진부하게 담아 온 요세미티 국립공원이었다. 나는 지금도 요세미티의 풍경이 담긴 사진들을 좋아한다. 지리적 풍경이 보여주는 대조적인 전망이 끊임없이 나를 자극시키기 때문이다. +